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청춘 그 자체 드라마

김태리·남주혁, 12일 첫방 tvN 토일드라마서 호흡
“1990년대 말 IMF 시대 꿈 빼앗긴 청춘들의 성장통”

배우 김태리와 남주혁이 199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풋풋한 청춘남녀로 호흡을 맞춘다.
tvN은 9일 새 토일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 제작발표회를 열고 12일 밤 9시 10분에 첫 방송한다고 밝혔다.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라는 어려움을 겪던 시대에 꿈을 빼앗긴 청춘들의 방향과 성장을 그린 드라마다. 제작이 확정됐을 당시 김태리와 남주혁의 만남만으로도 큰 화제를 모았다.
정지현 감독은 “때로는 유쾌하고, 때로는 슬픈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청춘드라마”라고 소개했다.
정 감독은 “90년대 말은 굉장히 격변의 시기인데, 청춘들이 성장하고 겪는 사건들이 시대 상황과 맞닿아 있다”며 “개인의 이야기지만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한 드라마로 인물들의 성장통이 무개념 같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스터 션샤인’ (2018) 이후 3년여 만에 TV 드라마에 출연하는 김태리는 “요세 장르물이 많은데,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그런 상황에서 읽었을 때 기분 좋아지는 대본이었다”고 전했다.
김태리는 IMF 사태 여파로 팀이 없어졌지만, 포기를 모르는 고등학교 펜싱 꿈나무 나희도 역을 맡았다.
팬싱 선수를 연기하기 위해 5~6개월간 훈련을 했고, 실력 향상을 위해 모래주머니를 몸에 달고 달리기도 했다. 매번 지던 경기에서 한번 이겼을 때는 감격의 눈물까지 흘렸다고 했다.
김태리는 “희도는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데 당당함에서 오는 매력 가장 좋았다”며 “기쁠 때 진짜 기뻐하고 슬플 때 진짜 슬퍼하고 모든 면에서 진심으로 하는 모습이 저와 닮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팬싱이 이렇게 재밌고 또 사람을 비참하게도 하는 운동인지 몰랐다”며 “(드라마에서 라이벌 역으로 나오는) 보나와 경기를 할 때마다 지니까 분하기도 하고, 이기려고 연구도 하고 재밌게 준비했다”고 전했다.
상대역 남주혁은 IMF 위기로 흥비박산 내버린 가정의

장남으로 억척스럽게 살다가 스포츠 기자가 된 백이진을 연기한다.
남주혁은 “다채로운 캐릭터를 보여주려고 신경을 썼다”며 “어느 하나에 갇히지 않고 100가지 색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시절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제 경험을 조금씩 끌어다 썼다”며 “자전거를 타고 신문을 던지는 아르바이트 등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연기했다”고 했다.
나희도와 백이진의 케미(케미스트리·공합)에 대해 김태리는 “서툴고 어리숙한 부분이 재밌는 포인트”라고 했고, 남주혁은 “청춘 그 자체로 청정하다”고 전했다.
김태리와 남주혁 외에도 김지연(우주소녀 보나), 최현욱, 이주명이 싱그럽고 풋풋한 청춘으로 호흡을 맞춘다.
김지연은 나희도의 라이벌인 펜싱 국가대표 고유림, 최현욱은 요즘으로 치면 인플루언서에 해당하는 문지용, 이주명은 전교 1등이자 반장이지만, 가슴 속엔 반항심으로 가득 찬 이승완으로 분한다.
정 감독은 “드라마를 보면서 지난날을 추억하고, 오늘을 따뜻하게 위로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연합뉴스

올 첫 히어로 블록버스터 ‘더 배트맨’ 3월 1일 개봉

침체에 빠진 극장가 구할 수 있을지 주목
배트맨 역 패틴슨, 봉준호 차기작 캐스팅

올해 첫 히어로 블록버스터 ‘더 배트맨’이 올봄 개봉을 확정했다. ‘스파이더맨’에 이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침체에 빠진 극장가를 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급사 워너브러더스코리아는 ‘더 배트맨’을 3월 1일 개봉한다고 최근 밝혔다.
새로운 배트맨은 ‘트와일라잇’ 시리즈로 스타덤에 오른 로버트 패틴슨이 맡았다. 패틴슨은 2020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에 출연한 데 이어 최근 봉준호 감독의 차기작에 캐스팅된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받았다.
‘더 배트맨’은 2년 동안 배트맨으로 살아온 브루스 웨인이 잔악한 연쇄 살인을 저지르는 수수께끼 킬러 리들러가 던진 단서를 풀어가면서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추리극의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패틴슨은 “슈퍼 히어로 영화를 찍는 것에 관심이 없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배트맨은 항상 특별한 존재였다”며 “‘더 배트맨’의 브루스 웨인은 고독하고 고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 하는 절망적인 절박함도 있는데 그것이 정말 흥미로운 해석이었다”고 밝혔다.
‘렛미인’, ‘혹성탈출’의 맷 리브스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았다. 리브스 감독은 “배트맨의 기원이 아니라 젊은 배트맨과 시작하고



3월1일 개봉하는 영화 ‘더 배트맨’.

싶었고, 그가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며 “배트맨의 인간적인 면과 세상을 더 낮게 만들려는 영웅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순전히 이타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캐릭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영화는 일반 상영(2D) 외에 아이맥스(IMAX), 돌비 시네마, 4DX, 슈퍼 4D, 스크린X 등 특수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병헌·이민정 확진... ‘우리들의 블루스’ 촬영 중단

배우 이병헌·이민정 부부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와 엠에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병헌과 이민정은 각각 지난 7일과 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백신 접종을 3차까지 마친 상태이며 현재 건강에 큰 이상은 없다고 소속사들은 전했다.
이병헌의 확진으로 그가 출연하는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는 촬영을 중단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그린 ‘우리들의 블루스’는 올해 방송 예정이며 신민아, 차승원, 이정은, 한지민, 김우빈, 엄정화 등이 출연한다.
/연합뉴스



황신혜·이지혜·장민호 ‘엄마는 예뻐다’ MC

배우 황신혜, 가수 이지혜와 장민호가 엄마의 청춘을 위해 댄스했다.
LG헬로비전엔 신규 오리지널 예능 ‘엄마는 예뻐다’를 4월 9일 MBN과 LG헬로비전의 지역채널 25번에서 첫 방송한다고 9일 밝혔다.
‘엄마는 예뻐다’는 의학·패션·뷰티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맞춤형 솔루션으로 엄마의 예뻐던 청춘을 다시 돌려주는 메이크오버(변신) 프로그램이다.
MC는 배우 황신혜와 가수 이지혜, 장민호,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경민이 맡았다.
MC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닥터스 군단’은 신청자를 찾아



이지혜(왼쪽부터), 황신혜, 장민호.

가 카운슬링부터 시니어 뷰티, 패션 팁까지 사연자에게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연합뉴스



VOYAGE TO GROWTH, WITH FISHDAY
피쉬데이와 함께 성장해 가는 항해

FISHDAY 피쉬데이
상상한 약속 피쉬데이

피쉬데이 정규직 채용공고

| 모집분야 |

모집분야	웹디자인	매장 영업 (수산 판매/관리)	물류
직무내용	포토샵 / 일러스트 능숙자 상품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SNS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관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자 1대1 코칭으로 초보자분도 어려움 없이 간단한 생산순절부터 회, 초밥까지 배울수 있는 기회	수산물 유통 (냉동참치 납품/배송) 1톤 냉동참치 배송 수산물물류 광주/전남권 매장별로 배송
근무시간	주5일 (월~금) 09:00~18:00	주6일 (격주휴무) 09:30~19:30	주6일 (월~토) 04:30~13:00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경력 1년 이상	차량소지자 우대 (전남권 근무시 유류비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필수)

| 주요복지 |

업무 숙련도에 맞춰 빠른 임금과 급여 인상 보장.
명절 상여금 (추석, 설/연2회), 하계휴가비 지원, 내일채움공제 가입, 생일상여금, 가정의달 선물 증정 등

| 문의 연락처 | 1522-4268, 010-7628-9292